

의안 번호	503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5.

전문위원 강영숙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진선아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503호

다. 제출일자 : 2025. 8. 14.

라. 회부일자 : 2025. 8. 27.

2.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위생해충과 대발생 곤충이 빈번히 출현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염병 매개 차단과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다. 대상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안 제5조~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0. ~ 2025. 8. 2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해충 및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방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모기,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의 구제(제거)와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곤충의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구분	정의	예시	특징
위생해충 등	감염병을 옮기거나 위생상 위해를 유발하는 곤충 및 설치류	모기, 바퀴벌레, 파리, 쥐 등	감염병 예방 대상, 정기 방역 대상
대발생 곤충	특정 시기·환경 변화로 도심에 대량 출현해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빈대 등	질병은 없지만 불쾌감·민원 유발

-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도시해충 실태 및 대응방안」(25. 4.15) 보고서에 따르면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두 해충 모두 시민 생활에 불쾌감과 불편을 초래하나 제도적 방제 체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고됨

* 동양하루살이는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등 한강 인접 지역에서 집중 발생했으며, 수질 개선과 야간 조명에 유인되어 도심으로 침투하고 있고

* 러브버그는 2022~2023년 은평구에서만 약 3,000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컼고, 마포·서대문 등 서북권을 중심으로 확산, 2024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출처 : 서울연구원(2025. 4. 15)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 따라서 본 조례는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대발생 곤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우리구의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조례의 목적을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에 두고, 위생해충(파리, 바퀴벌레, 모기 등)과 대발생 곤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나.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 마련에 노력할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다. 안 제5조(대상지역)

- 구청장은 각 호에 명시된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규정 함.

라. 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구청장은 매년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 지원계획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안 제7조(지원사업)

-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시설 설치, 용품 관리, 홍보사업 등 추진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제 지원, 시설물 설치, 주민교육 등 추진 가능하도록 명시함.

바.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홍보)

-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최근 도시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위생해충 및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2025.6.23.]

이 연구에서는 빈대, 러브버그와 같이 최근 도시에서 이상증식 현상을 보인 해충을 통칭하는 용어가 없어 ‘유행성 도시해충’이라는 용어를 사용

요약1. 최근 곤충 이상증식으로 시민의 불편 증가하나 법적 대응방안·체계 미비

과거 전통적인 해충 문제는 주로 모기, 바퀴벌레, 파리와 같은 위생 해충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이 기존 서식처에서 벗어나 도심지에 대량 발생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외래종 침입의 확률도 높아 집에 따라 2023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빈대 확산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로 시민의 불편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시민 건강 저해, 시야 방해, 건축물 오염, 상업시설 피해 등을 일으켜 안전성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유행시기에는 민원이 폭증하여 서울시 및 지자체 담당자들은 기존 업무가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2022년, 2023년에 러브버그의 대유행으로 은평구 경우 유행 기간에 따라 3,000건 이상의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방안이나 체계가 없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약2. 서울시민 94% 유행성 도시해충에 따른 스트레스 위생해충과 유사 또는 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행성 도시해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유행성 도시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시민은 96%로 대부분의 시민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 65%는 실제로 접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기만 해도 싫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바퀴벌레 66%에 이어 빈대가 60.1%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러브버그가 42.6%였다.

러브버그는 서울시에서 이로운 곤충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7%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운 곤충이라도 대량 발생 시에 피해를 끼치면 86%의 서울시민이 해충으로 인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의 비율은 높았으나 실제로 지자체에 방역 요청 경험이 있는 시민은 전체 약

10%에 불과했다. 은평구의 러브버그 민원이 약 3,000건에 까까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비율은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 즉 실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수는 민원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정 시기에 민원이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3. 해외 선진국, 통합해충관리(IPM) 통한 화학물질 최소화 제도 활용

통합해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는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 식별, 예방, 방제 등의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방안을 통해 해충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방제보다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화학적 방제를 선택한다**. 또한 해충 종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련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